

---

# 무덤으로 본 新石器時代 漁撈民의 海洋景觀 構築

임 상 택\*

---

## 목 차

- I. 머리말
  - II. 한반도 신석기화 3단계와 검토 대상자료
  - III. 해안 및 도서지역 자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들
  - IV. 동·남해안 및 도서지역 신석기시대 무덤
  - V.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경관, 묘역
  - VI. 맺음말
- 

---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국문요약

한반도 동해 중부와 남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수렵채집어로민들은 초기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자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해안과 도서지역을 자원 획득을 위한 경제적 패치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해안과 도서지역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무덤 유적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상 지역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다양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확인된 무덤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이 당시 개인 및 집단들에게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일종의 기념물과 같은 장소성을 획득하였음을 경관고고학적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반복적 장례행위와 같은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은 해당 지역을 그들의 경관 속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초기 이래의 해양 적응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진행된 것임을 추적하였다.

### Ⅰ 주제어 Ⅰ

신석기시대, 조~전기, 무덤, 해양 경관, 장소성

## I. 머리말

한국에서의 신석기시대 연구는 주로 편년과 생업 관련 연구에 치중된 경향이 강하다. 특히 수많은 패총이 존재하는 해안 및 도서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 패치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왔다(신숙정 1994; 임상택 1998, 2006; Lee 2001; 이준정 2002 등). 본고는 한반도 남부 해안 및 도서의 물리적 ‘空間 space’이 자원 패치라는 경제적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어로민<sup>1)</sup>들에게 역사적, 사회적, 상징적 ‘場所 place’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경관고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 중 하나로 무덤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반도 동해안 및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무덤 자료를 통해 도서 및 해안 지역 어로민들의 해양경관 구축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무덤은 일차적으로 사자(死者)의 안치 공간이지만, 사자와 연결된 후손들에게는 자신의 가족과 선조가 모셔진, 특별한 장소로 기억된다. 즉, 무덤은 개인과 공동체를 그들 주위의 물리적 공간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인 것이다.

## II. 한반도 신석기화 3단계와 검토 대상자료

한반도 신석기시대는 크게 6기(초창기-조기-전기-중기-후기-말기)로 편년된다(한국고고학회 2011). 본고는 그 중에서도 자료가 적거나 무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초창기와 후말기를 제외하고 초기~중기까지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은 무덤 자료가 확인되는 남해안 및 동해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들은 초기 단계부터 본격적인 유적 점유가 시작되고 해양자원 이용 양상을 잘 보여주는 패총 역시 이때부터 활발하게 남겨지게 된다. 필자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남해안 지역 신석기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金壯錫·林尙澤·金鐘一 2011: 97-107). 첫 단계는 토기가 처음 등장하고, 도구체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초창기 단계(기원전 8000~6000)로 현재까지는 제주도에서만 확인된다.<sup>2)</sup> 두 번째

1) 일반적으로 수렵채집민으로 지칭되지만, 본고에서는 해안도서지역 수렵채집민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어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어로만을 행하였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2) 제주도 초창기의 석기는 세석핵과 세석인, 밀개 등 후기구석기적 특징이 지속됨과 더불어 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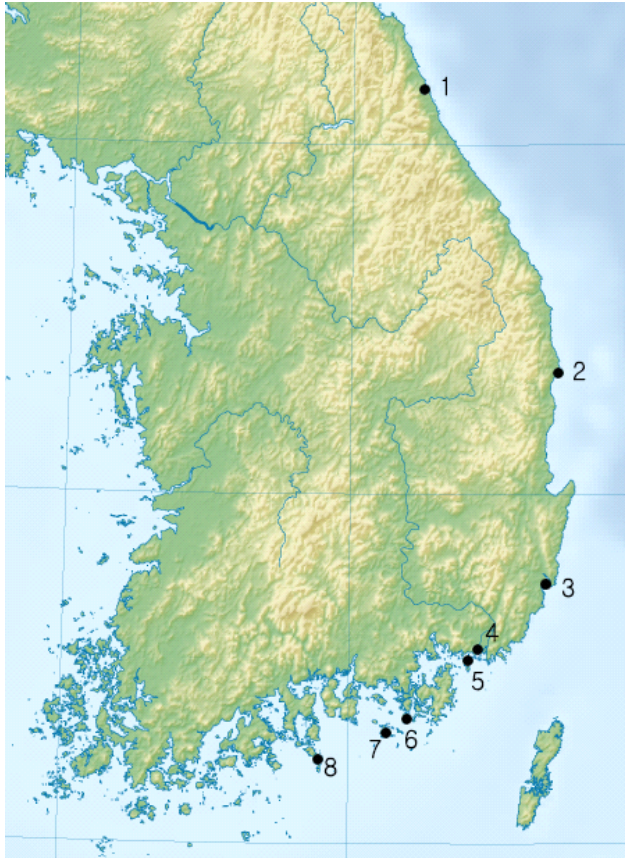


그림 1. 대상 유적 분포도

(1:문암리, 2:후포리, 3:처용리, 4:범방패총, 5:가덕도 장항,  
6:연대도패총, 7:옥지도패총, 8:안도패총)

단계는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시기로 해양 적응이 본격화하는 초기~전기 단계(기원전 6000~3500)이다. 신석기화 첫 단계 제주도의 초창기 유적 출토 자원획득 관련 유물들은 석촉과 석창 등 대부분 수렵 관련 도구이다. 한반도에서는 이 단계에 처음으로 토기-고산리양식-가 확인된다. 반면, 신석기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해양자원(어류 및 해서포유류) 획득과 관련된 복합 도구(결합식 낚시 및 역T자형 낚시, 각종 작살, 통나무배 등)가 발달하고(하인수 2006b; 이상규 2014) 패류 이용이 본격화되며, 동삼동양식 및 영선동양식 토기(임상택 2017)가 유행

한다. 이 시기는 일본 큐슈 지역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정징원·하인수 1998; 甲元眞之 外 2002; 하인수 2006a; 林尙澤 2008; 이상규 2019 등). 배를 소유한 해양 어로민의 등장과 성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중서부 이남 지역에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한 초기농경이 도입되고, 육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단계로 중서부에서는 전기 후엽, 남부지역에서는 중기 이후에 해당된다. 수혈 주거 취락이 본격화하고 초기 농경 관련 도구(판상 굴지구와 말안장형 갈돌, 갈판 등)가 완비되며 유적 규모의 증대 및 대형 토기

조정 석촉 및 석창의 대량 사용, 전면마연 석부의 등장, 공이형 갈돌과 접시형 갈판의 등장 등 새로운 기종 구성이 확립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는 계승과 혁신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내에서도 동해 기곡, 월소, 익산 서두리, 제천 재너머들 등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최말기로 보고된 양면조정의 석촉과 유경식 석창이 소량이나마 확인되고 있는 바, 향후 한반도 내에서도 초창기 토기 등 새로운 도구의 확인이 기대된다.

의 증가 등에서 인구 증가를 엿볼 수 있는 단계이다(임상택 2006). 본고는 이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조기와 전기 단계 양상을 중심으로 일부 중기 자료를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대상 자료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확인된 무덤이다(그림 1 대상 유적 분포도 참조).

### Ⅲ. 해안 및 도서지역 자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들

한반도 남해안에는 신석기시대 초기~말기에 이르는 많은 패총유적들이 존재한다. 이 중 특히 전문화된 어로 및 해수사냥 도구가 발달하고 일본 규슈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조기와 전기 단계이다. 한반도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들은 출토 유물과 유구에 근거해 근거지형과 캠프형 등으로 구분된 바 있으며(임상택 1998; 이준정 2002), 전자를 대표하는 것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동삼동 패총, 후자를 대표하는 것은 부산 수가리 패총 등이 있다. 동삼동 유적은 수많은 사슴 뼈와 다량의 토기 및 석기, 장신구, 주거지와 옹관묘 등을 근거로 동남해안지역의 대표적 거점 유적으로 인식되었으며 규슈 지역과 교류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삼동은 규슈산 흑요석의 유통 결절점(node), 교역을 전제로 한 조개팔찌의 제작지로 주목받았다(하인수 2006a, 2014). 동삼동 출토 사슴 뼈의 부위 검토를 통한 유적 성격 연구(이준정 2003), 남해안 출토 흑요석에 대한 산지 분석(高橋豊·河仁秀·小畑弘巳 2003) 및 교류 문물연구(임효재 1986; 정징원, 하인수 1998; 하인수 2001, 2006a; 임상택 2008; 甲元眞之 外 2002 등), 생업 연구(최종혁 2009; 김은영 2012 등) 등은 동삼동 유적의 생업상 성격은 물론, 이 유적이 남부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르면, 동삼동은 근거지적 성격을 갖는 유적으로 코시다케(腰岳) 등 규슈 산 흑요석의 반입 거점이자 흑요석에 대한 대응 품목인 조개팔찌의 생산 및 유통 중심지로서 기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어로 관련 각종 도구에 대한 연구(김충배 2002; 안성희 2011; 이영덕 2006; 이상규 2013, 2014; 천성주 2010; 최득준 2012; 하인수 2009 등)를 통해 남해안 어로문화에 중핵적인 도구인 결합식 낚시 및 각종 작살의 형식 분류와 편년, 도구 조성 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각종 도구에 대한 연구 역시 기본적

으로는 생업 이해의 기초로서 시도된 것들이다.

이와 함께 남부 지역 패총의 패류 분석이나 인골, 동물 뼈 분석은 남해안 신석기인들의 자원 획득 시기와 해수 사냥 등 생업활동의 스케줄링 및 식단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이해되었다(안덕임 1993, 2009, 2011; 안덕임·이인성 2015; 金子浩昌·中山清隆 1994; 신숙정 1997; 김건수 2001; 이은 2010 등). 이를 통해 동삼동이나 연대도 등 남해안 지역 집단이 어패류를 비롯한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과 동삼동 등 남해안 거점 패총이 연중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패류의 채취 계절도 겨울을 중심으로 가을에서 초봄까지의 시기에 집중된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연구는 토기 편년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석기 및 골각기, 동식물 유존체 및 인골 등 일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업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신숙정 1994; 한영희 1997; 하인수 2006c; 최종혁 2004, 2006, 2012 등). 이와 함께 비봉리, 죽변 유적에서 통나무배와 노가 출토되면서 해안도서지역을 이용한 신석기시대 어로민들이 초기 단계부터 배를 이용하여 생업과 교류를 행하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동·남해안 조~전기 집단들은 한마디로 말해 ‘배를 소유한 해양 어로민’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3)</sup> 남해안 및 도서지역의 여러 패총 유적들과 출토 자료는 이러한 해양어로민의 성격을 밝혀주는 지시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러한 경제적 접근들은 당시 해양어로민들의 삶의 여러 측면 중 일부—물론 매우 중요한—만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양에 적응하였는지는 경제적 접근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다라는 거친 환경을 그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바다와 그들을 묶어줄 그 무엇.

#### IV. 동·남해안 및 도서지역 신석기시대 무덤

본 장에서는 해안 및 도서지역 조·전기 사회가 해양 자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그들의 경관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무덤 자료를 분석

3) 중기가 되면 중서부지역과의 관련 속에서 새로운 양식의 토기(수가리양식)와 함께 조, 기장 중심의 초기 잡곡 농경이 남부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수혈주거로 이루어진 취락이 본격화한다.

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무덤 유적은 매우 적은 편이다. 남해안에는 부산 가덕도 장항, 범방, 통영 연대도, 옥지도, 상노대도, 울산 처용리, 전남 안도 등이 있으며 동해안에 후포리와 문암리가 알려져 있다. 동삼동과 상촌리에서는 옹관묘가 보고되어 있다.<sup>4)</sup> 시기는 초기~전기의 자료가 많고 나머지는 일부에 불과하다. 무덤은 그 규모를 토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복수의 매장 유구가 확인되고 묘역이 조성된 공동묘지 성격의 것과 묘역을 특별히 확인할 수 없는 1기~몇 기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가덕도 장항과 통영 연대도, 처용리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범방, 옥지도, 안도 등이 대표적이다. 울진 후포리는 집단장이라는 면에서 나머지 매장 유적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의 유적이다. 입지와 함께 무덤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본고 논지에 많은 시사를 주는 유적이다.

대상 유적들은 전용 매장공간으로 이용된 것과 생활유적으로 볼 수 있는 패총 내에 위치한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장항, 연대도, 처용리, 후포리에 해당되며, 후자는 범방, 동삼동, 옥지도, 안도가 해당된다. 위 무덤 자료들에 대해 입지, 두향, 구조와 장법, 연령과 성별, 부장품을 검토하여 무덤의 특징을 구체화한 후 이를 경관고고학적 시각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기와 석기, 무덤 구조 및 장법, 부장품의 차이를 통해 대상지역을 공간적으로 세분해볼 것이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등질적 집단들 및 개별 집단을 구분해보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 1. 입지

현재 확인된 대상지역 무덤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바다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남해안 지역 무덤들은 모두 바다에 바로 접한 해안 혹은 도서지역의 평지나 낮은 사면에 위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해안 무덤들은 패총과 공반하여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안도, 범방, 옥지도 등이 패총과 공반하는 예인데, 패총이 단순한 쓰레기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패총과 공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수의 인골이 확인되지 않고, 한 두기 정도의

4) 울산 산하동 화암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중기의 합구식 옹관묘가 보고되었는데(동서문물연구원 2008), 옹관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같은 맥락에서 동삼동과 상촌리의 옹관도 제외한다.

무덤만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패총이 지속적으로 무덤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후술하듯이 이러한 양상은 최소단위의 특정 집단(가족 혹은 개별 집단)이 특정 장소에 대해 일종의 영역권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덤을 조영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덕도 장항 유적은 대규모 집단 묘지이면서 패총과 공반하지 않는다. 패총과 공반하는 무덤이 최소단위 특정집단과 연결되고 그들의 생업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조성된 것인데 비해, 장항 유적은 복수의 가족 단위를 포괄하는 특정 집단 혹은 복수의 집단들이 바다에 인접한 특정 장소에 장기간에 걸쳐 묘역을 조성함으로써 바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업 공간을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경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경관 구축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보여준다. 후술하듯이 대규모 묘역은 그 자체로 집단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성소(聖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남해안 끝단에 해당하는 울산 처용리는 바다에 접한 구릉 능선상에, 동해안의 울진 후포리 유적은 해안에 접한 독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문암리에서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처용리는 바로 인근에 세죽, 성암동, 황성동 등 조전기 단계 생활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취락 인근의 구릉지역에 자신들의 묘역을 구축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후포리는 해안가에 돌출한 독립구릉이라는 독특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서 생활 유적이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죽변 유적의 사례를 본다면 주변에 생활 유적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동해안 무덤들은 개별 취락의 인근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의 패총과 공반하는 무덤들은 인근에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 무덤의 취락과의 공간적 관계에는 차이가 있다.

남해안과 동해안 무덤들에서 세부적으로 입지 및 취락과의 공간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무덤들이 바다를 접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축조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무덤들은 대부분 초기와 전기에 해당되는 바, 이 단계 생업이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임을 고려할 때 무덤의 입지가 그들의 생활 터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두향

두향은 유적마다 다양하지만 한 유적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가덕도는 대부분의 인골이 동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연대도와 옥지도는 서향, 안도는 북동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당시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 경관이라 할 수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은 대부분의 유적에 공통된다.<sup>5)</sup> 바다가 서쪽에 바라보이는 입지에서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바다가 동쪽에 바라보이는 입지에서는 머리는 서쪽에 둔다. 즉, 태양이 뜨거나 지는 방향과 같은 절대 방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장 공간 주위의 지형과 당시 사람들이 중시한 경관이 두향 선정의 일차적 고려대상인 것이다. 다만 후포리의 경우는 인골 잔존상태 불량으로 두향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골 안치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며 인골을 덮은 석부의 장축방향과 같다. 두개골이 확인되는 경우는 북동향과 남서향이 모두 확인되는데,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유적의 입지상이 두 방향의 두향에서 모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입지와 두향을 함께 고려하면, 일차적으로 바다와 인접한 입지를 선정하고, 매장 시에 사자의 시선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무덤의 두 속성 결정에서 ‘바다’가 매우 중요한 결정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頭向으로 본 死者의 시선(화살표) (좌: 가덕도 / 우: 안도)

5) 이러한 두향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임학중 2003).

### 3. 구조와 장법

무덤의 구조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얇은 구덩이(후포리)나 일정 깊이를 굴착한 수혈식(처용리, 문암리), 특별한 수혈을 확인할 수 없는 지상식(가덕도 장항)으로 구분되며 관은 확인되지 않는다.<sup>6)</sup> 일부는 인골 주위나 상하면에 큼직한 돌을 놓기도 하고, 작은 자갈이나 토기를 깨트려 깔거나 덮기도 한다. 연대도에서는 작은 자갈을 인골 상부에 덮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가까운 연대도와 장항에서는 큰 돌을 놓은 점이나 인골 상부에 토기를 덮은 점 등에서 유사성이 확인되며, 토기 부장, 토기형식 등에서 공통성이 매우 높다.

장법은 신전장과 굴장으로 대별된다. 1기에 불과하지만 부신장(俯身葬)도 확인된다. 이외에 동삼동과 상촌리에서 옹관으로 보고된 것이 있으나 불확실하다. 유적별로 보면 신전장이 가장 일반적 형태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골이 확인된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48기)에서는 굴장의 비율이 74%(39/7)에 달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범방에서도 하반신을 구부린 굴장이 확인된다. 굴장은 현재까지 동남해안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단독장이며 남녀 합장은 안도 1호 무덤 1기만이 확실하다. 연대도와 육지도에서는 1기의 무덤에서 2~3인의 인골편이 확인되어 합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잔존상태가 불량해 합장 여부는 불확실하다. 울진 후포리는 독립구릉 정상에 위치한 입지와 함께 다수의 인골이 함께 매장된 집단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현재까지는 유일한 사례이다. 신전장도 확인되나 육탈 후 세굴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형석부를 인골 위에 덮는 특이한 장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관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시신의 상부를 자갈이나 토기, 석부 등으로 덮는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구조상에서는 수혈식 혹은 지상식이, 장법에서는 신전장과 굴장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나타난다. 후포리 사례를 제외하면 이차장은 일반적이지 않다.

---

6) 지상식이라 하더라도 주검이 노출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위에 흙 등 무언가를 덮었을 것이라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 장항 유적의 경우 인골이 흐트러지지 않고 강한 굴장을 유지한 상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림 3. 굴장, 신전장, 이차장 사례(상: 가덕도 / 하: 후포리)

#### 4. 연령과 성별(표 1)

안도패총 피장자는 남 3, 여 2, 2~30대 3, 50대 이상 2로 유아나 어린이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장항 유적 역시 전 연령대가 확인되며 특히 10세 미만의 유소아 무덤도 9기나 확인된다. 성별도 편중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연대도 역시 영유아부터 숙년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

하는데, 10대 이하가 2, 20대가 2, 40대가 10, 60대가 3인으로 확인된다. 남녀 편중은 보이지 않는다. 옥지도에서는 무덤 2기 중 한 기에서 장년 남성이, 다른 한 기에서는 장년~숙년의 남성과 20대 여성의 인골이 확인된다.<sup>7)</sup> 후포리에서는 약 40개체에 달하는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역시 남녀 편중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특이하게 20대 전후의 젊은 연령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상, 각 무덤 출토 인골의 성별과 연령을 검토하면, 피장자의 성에 따른 편차는 없으며, 연령대 역시 후포리를 제외하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30~50대의 연령대가 가장 중심을 이룬다.

표 1. 남해안 신석기시대 무덤 출토 인골의 성별, 연령, 장법

장항48			연대도17	외이도골중(여1,남2)	
성별	남	16	성별	남	6
	여	15		여	6
연령	10세 미만	9	연령	신생아	1
	10대	1		유아	1
	20대	4		성인	2
	30대	8		장년	10
	40대	8		숙년	3
	50대	3	장법	굴장	0
	60대 이상	3		신전장	10
장법	굴장	29			
	신전장	7			

안도5					
호수	성별	연령	장법	부장품	비고
1호인골	여성	20대	앙와신전장		외이도골중
2호인골	남성	30대	앙와신전장	조개팔찌 2	1호와 합장
3호인골	남성	30대	앙와신전장		외이도골중
4호인골	여성	50대	앙와신전장	조개팔찌 5	
5호인골	남성	60대 이상	앙와신전장		

7) 옥지도에서는 2기의 무덤이 추가로 보고되었는데(임학중 2003), 이 중 3호는 적석 등 시설만 있고 인골이 확인되지 않아 무덤인지 불확실하며, 4호는 대퇴골만이 확인되었는데 장년으로 추정하였다.

연령과 성별에서 특별한 편중 현상이 확인되지 않음을 볼 때, 묘역이 사회 내 특정한 분파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8)</sup> 묘역 중에는 패총과 공존하는 것과 묘지 전용인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대적으로 묘역 규모가 작고, 후자는 다수의 인골이 확인되는 공동묘지의 성격이 강하다. 양자는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여겨졌을 것이다. 패총 내 묘역은 아마도 자원패치에 대한 특정 소규모 집단(단일 집단?)의 접근 권리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묘역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전략이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 전용묘역은 일상생활 영역과 구별되어 존재하고 묘역 내 무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아, 집단 전체 혹은 인접한 복수의 집단들이 공유하는 묘역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곧 전용 묘역이 공동체의 공유된 경관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자 처리를 위한 용도 이외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후술한다.

## 5. 부장품

부장품은 피장자의 성격, 사회적 지위, 사회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안도 패총 1호 무덤 피장자(30대 남성)는 오른팔에 팔찌를 장착한 상태로 토기 부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항 유적에서는 48기 중 3기에서만 팔찌, 2기에서만 옥제 장신구, 1기에서만 상어 이빨 경식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무덤에서 토기 부장이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영유아 무덤에서도 부장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연대도는 17개체 중 2개체(모두 여성)에서만 팔찌가 확인되었다. 7호(장년 남성)에서는 발찌와 토기, 석기 등 다량의 부장품이 확인된 바 있다. 14호(장년 여성?)에서는 팔에 관옥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토상황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연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토기 부장이나 덮기, 낚시 바늘과 흑요석, 석부, 숫돌 등 생활 도구 부장이 확인된다. 옥지도에서는 특별한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범방에서는 옥제 수식과 골각기가 확인된다. 처용리에서는 토기 부장이 없거나 극히 예외적이고 석부와 작살, 결상이식 등 도구와 장신구 부장이 확인된다. 후포리에서는 토기를 전혀 부장하지 않고, 석부와 옥제품이 일종의 부장품임과 동시에 사자를 덮는

8) 물론 죽은 자 모두가 무덤을 쓸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역할을 하고 있다. 부장품을 통해서는 장항이나 연대도, 처용리 등에 보이듯이 조개팔찌, 옥제품, 결상이식 등 묘역 내 피장자 중 일부에게만 부장되는 특별한 부장품이 확인되고, 유아 무덤에서도 성인과 같거나 능가하는 부장품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항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당대에 한정되는 획득지위의 차이를 상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무덤들이 묘역 내에서의 탁월한 입지나 공간적 분리 현상을 보이지는 않고, 옥제품, 결상이식, 조개팔찌 등 희귀 물품이 특정 개인에게 한꺼번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직적 위계가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의례적 영역 등에서의 횡적분화 heterarchy가 진전된 사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임상택 2015; 김범철 2017).

이상의 부장품 양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간취된다. 먼저 토기 부장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남해안 동부는 토기 부장이 뚜렷하다. 그러나 남해안 서부와 동해안은 토기 부장이 확인되지 않거나 파편상으로 확인되어 부장 여부가 불확실하다. 조개팔찌 장착은 패총이 분포하는 남해안 일대에 국한되고 동해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옥제품과 결상이식은 대상지역 전체에서 확인되지만 극소량에 불과해 가장 희귀한 부장품이다. 부장품이 다량으로 확인된 장항에서는 결상이식은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아 특이하다. 석부와 지석, 낚싯바늘과 흑요석촉 등 생업 관련 도구 부장 역시 대상지 전체에 확인되지만 소량에 불과한데, 후포리에서만은 부장 전용으로 생각되는 대형의 마제석부가 시신을 덮는 역할을 하면서 다량으로 확인되는 특징이 보인다. 장항에서는 피장자의 생전 역할이나 활동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고래늑골, 안료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 6. 무덤으로 본 소지역 구분의 여러 층위

이상 검토한 양상에 기초하면 대상지역은 복수의 수준에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대상 지역 전체에 걸쳐 보이는 것, 즉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부장품 중 희귀품에 해당되는 결상이식이다. 수량은 적고 분포도 성기지만, 강원 영동지역의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남해안 서부 안도 패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주지하듯이 결상이식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매우 넓은 분포를 가지는 장신구이다. 희소성이 높은 장신구는 개별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데 매우 유용한 소재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광범위한 분포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향은 유적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바다를 바라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전 지역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입지는 지형 조건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모두 바다에 인접해 위치하면서도 남해안은 평지나 낮은 경사면에, 동해안은 독립구릉 정상부와 구릉 능선부에 위치해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 토기 부장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남해안 서부와 동부, 동해안으로 크게 삼분된다. 남해안 동부가 토기 부장이 활발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아예 토기부장이 없거나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 구조와 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남해안은 사자를 얹고 완만한 수혈이나 지상에 안치하고 큰 돌을 일부에 돌리거나 토기를 깨뜨려 덮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 동해안은 확실한 굴광이 확인되는 수혈식 무덤과 우묵한 자연 지형을 이용한 집단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전장이 전 지역에 확인되지만 남해안 동부 장향과 범방에서는 굴장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동해안 후포리는 집단장이라는 점에서, 남해안 서부는 남녀합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와 같이 가장 넓은 분포 즉 공통성을 보이는 것은 바다와의 인접성, 두향, 위세품으로서의 결상이식이며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덤 구조와 장법이다. 전역에 공통하는 요소, 권역별(남해안 vs. 동해안 또는 서남해안 vs. 동남해안 vs. 동해안)로 나뉘는 요소, 유적별 혹은 소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 구분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덤 혹은 무덤 부장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일반 생활 유적(주거지, 폐총, 포함층 등) 유물상이나 의례 관련 유적(반구대 암각화)을 토대로 본고 대상지역을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보자. 남해안과 동해안 신석기 집단은 조기와 전기 모두 해양어로민의 성격을 갖는다. 어로 및 해수 수렵구의 형태나 기종 조성(결합식 낚시, 조합식 작살, 골제 작살, 석제 작살, 어망 등)은 기본적으로 공통된다. 그러나 (가칭) 문암리형 석도, 장조형 전면 마제석부 등은 동해안에 특징적이며, 골제 작살은 남해안에 특징적이다. 한편, 토기는 남해안의 동삼동 양식과 동해안의 오산리 양식이 조기를 대표하는 양대 양식이다. 오산리 양식은 후반기에 북과 남의 두 지역 유형(오산리유형 vs. 죽변 유형)으로 세분된다. 전기 남해안은 영선동 양식이 유행하나 동해안 양상은 불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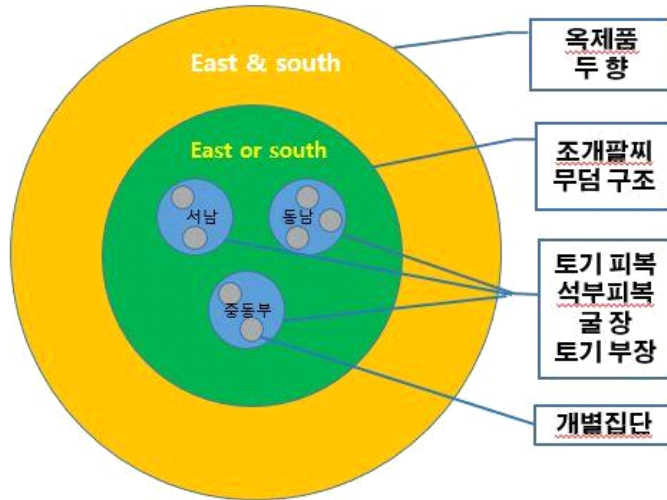


그림 4. 무덤을 통해 본 소지역 구분의 여러 층위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대상 지역은 여러 기준들에 의해 전 지역 - 권역(남해안 vs. 동해안) - 중권역(남해 서부 / 남해 동부 / 동해 중부 / 동해 남부) - 소권역(서부 경남 / 동부 경남) - 단위 유적 순으로 위계적 공간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작은 단위(단위 유적 혹은 소권역)의 공간 범위를 잘 드러내는 것은 무덤의 장법과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개인 또는 공동체가 주변 환경을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및 집단 결속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무덤의 장법과 구조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일상적 경관 구축 행위는 결국 그들의 일상적 활동 범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 범위는 일상생활 무대를 중심으로 한 좁은 공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덤의 구조와 장법에서 보이는 단위 유적 혹은 소권역 간의 차이와 연동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별 집단 혹은 소권역 단위에서의 경관 구축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무덤 유적이 가지는 의미, 나아가 무덤을 품고 있는 섬과 해안 지역이 당시인들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음미해볼 것이다.



## V.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경관, 묘역

경관고고학적 연구는 특정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는 소위 ‘유적’에 국한된 시각을 확대하고 인간의 주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리적 공간이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다. 경관은 결국 인간이 물질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매튜 존슨 지음, 오세연 옮김 2015). 따라서 매일의 일상을 사는 인간들에게 그들과 떨어진, 이미 주어진 물리적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간은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 활동, 감각을 통한 기억, 학습을 통해 개인 및 공동체마다의 특정한 의미를 갖는 장소로서 끊임없이 창조, 재창조되고 재해석된다. 동일한 풍경도 사회에서 속한 위치나 개인적 경험, 학습 등에 따라 개별 집단 또는 개인마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김종일 2006). 이러한 차원에서 묘역이란 단순히 사자(死者)의 안치공간을 넘어 장례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매장지의 선정, 매장 과정, 매장 전후 의례 등-을 통해 특정 가족과 공동체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경관으로 재구성되어 장소성(spaceness)을 획득하게 된다. 장소성은 묘역에 대한 반복적 방문과 사자(死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개인과 집단 속에 지속된다. 그 장소가 반복적으로 공동체의 장지(葬地)로 사용될 경우(공동묘지),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묘역 경관의 장소성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풍수(風水)라 불리는 전통적인 땅에 대한 철학적 관념 및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론이 존재해왔다. 실제에서는 풍수란 기본적으로 산 사람들의 생활공간(陽基), 죽은 사람들의 안식 공간(陰宅)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산 사람들의 안녕을 얻고, 죽은 자를 편하게 모시는 것이다. 풍수는 산과 물, 방위와 사람을 기본 요소로 하는 바, 명당은 주변 산세가 좋고 반드시 좋은 물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되는 셈이므로 풍수는 결국 취락이나 분묘의 입지를 선정하는 일종의 동양적 원리이자 경관을 구축하는 개인과 집단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하게 시간의 누적 속에서 점차 체계화된 것이다. 풍수는 환경을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경관고고학적 인식과 유사하다. 시대, 지역을 불문하고 인간은 일종의 풍수적 사고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관을 형성해왔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풍수적 사고에서 양기(陽基), 즉 삶의 장소로 선호되는 공간은 주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한 지점이 되는 바, 생업 활동의 최적지에 대한 일종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풍수에서의 음택(陰宅), 즉 죽음의 장소로 선호되는 곳은 삶의 공간과의 접근성, 삶의 공간에서 바라보이는 시야, 매장 지점의 물리적 안정성 및 보호성 등의 차원에서 최적지인 곳이다. 음택은 단순히 시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산 자의 입장에서 지속적 접근과 반복적 시각 기억을 통해 선조와 자신을 연결시키고(집단 정체성) 공동체와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장소이다. 풍수에서는 최적의 음택 선정이 후손의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산 자가 죽은 자 및 환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덤 공간 구축이 단지 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동양의 풍수 사상은 경관고고학적 인식과 많은 부분 공통된다. 특히 자연을 주어진 물리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결부시켜 장소적 사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그러하다. 사실 고고학에서 취락이나 무덤의 입지에 대한 경관고고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풍수의 서양 버전이라 할 만하다. 양자의 차이라면 경관고고학은 현재 고고학자의 시선을 거쳐 당시 사람들의 장소성 획득과정 및 그 의미를 역추적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풍수는 현실적 측면에서 산자들의 실익을 매우 중시하는 방법론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풍수적 입장과 경관고고학자의 입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평가하는가(풍수) 사후에 평가하는가(경관고고학)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해안 신석기시대 무덤이 모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와 사자 두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 바다와의 강한 연계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산 자와 바다의 연계성 역시 강하게 보여준다. 남해안 조~전기 수렵채집민들은 해수수렵과 어로, 조개채집 등 해양자원 이용에 특화된 해양수렵채집민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무덤은 후손에게 기억의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공동묘지 성격을 갖는 장항이나 연대도 유적 등의 예는 이러한 기억 저장 행위가 누적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무덤의 장소성이 확대, 심화되는 것이다.

장소성의 강화는 당시 수렵채집민들에게 선조와의 연계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이다.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집단들에게 공동묘지는 생업활동 과정의 기점, 좌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섬에 대한 인식은 묘지 조성을 통해 자원 패치로서의 경제적 경관에서 집단의 사회적 기억이 저장된,

역사성을 가진 사회적 경관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는 다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장치로도 기능하게 된다. 섬에 구축된 요역은 관련 공동체의 경제적 활동영역을 한정하는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고인돌과 같은 거석기념물이 관련 집단의 지리적 중심 또는 좌표로서의 일종의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덤을 기점으로 하는 일정 영역권이 다른 영역권과 구별되는지를 고고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일차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먼저 무덤의 구조와 장법을 통해 영역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해안 일대는 장항 유적에서 보듯이 확실한 수혈이 없는 평지에 매장을 행함과 동시에 신전장과 가덕도식 굴장이라는 특이한 굴장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호와 발을 중심으로 한 다량의 토기 부장이 큰 특징이다. 토기는 남해안 조기말 또는 전기초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아무덤에도 많은 부장품이 부장되거나, 조개팔찌나 옥제 목걸이 등 희귀품을 장착한 소수의 인골에서 보이듯, 사회 내 위계의 차이도 확인된다. 그러나 성별이나 나이의 분포에서 보듯 집단 내 노령자만의 전용 공간이거나 특정 성의 전용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토기에서 매우 단일한 응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정 시기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의 무덤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동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면 매우 다른 매장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울산 처용리 유적에서는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뚜렷한 수혈을 굴착하고 결상이식이나 석부 등의 부장품을 소량 부장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토기 부장은 극히 예외적이다. 동해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울진 후포리 유적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목한 지형을 이용하여 집단장을 하고 있으며, 토기는 전혀 부장하지 않는 대신 초대형의 석부를 다량 부장 또는 덮는 특이한 장법을 구사하고 있다.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얇은 수혈을 파고 잔자갈을 덮거나 토기를 덮는 장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덤 구조와 장법에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각 영역권에서 현재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매장지점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인데, 각 영역권 내에서 복수의 거점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그 일부라 할 것이다. 서부경남 해안과 동남해안은 인접할 뿐 아니라 토기를 덮는 방식의 부장행위, 토기 부장, 바다와 관련된 부장품(낙숫바늘, 고래뼈)의 매납 등 공통의 요소가 확인된다. 울산지역과 동해안은 토기 부장의 부재, 바다 관련 도구 부장의 부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토기 상에서 남해안은 용기문토기 전통의 공유, 울산과 동해안은 오산리식토기 전통의

공유 또는 일부 공유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장신구에서 남해안은 조개팔찌 장작이라는 공통성이 보이지만 동해안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결상이식은 남해안과 동해안 모두에 보이는 공통 요소이다. 물질문화에서 보이는 공통성과 차이점은 부장 유물의 성격, 종류에 따라 다양한 층차를 보인다.

이와 같이 무덤과 토기 등 물질자료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영역권은 해양수렵채집민들의 기본 활동 영역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들은 일상 생업활동(어로 및 패류채집, 수렵, 채집) 및 장례를 포함한 의례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경관을 구축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활동무대가 곧 경관 구축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경관은 다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지표가 된다. 그 안에서 공동묘지와 같은 묘역은 일종의 좌표로서 활동영역을 한정하는 시각적 기점,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역사적 기억의 기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묘역의 장소성은 이러한 실천활동과 학습을 통해 지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섬은 단순히 피항처나 식료획득 장소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섬 혹은 해안의 특정 지점은 무덤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조상을 모신 성스러운 의례와 역사의 공간이 되는 동시에 산 자의 안녕과 단합, 정체성 유지라는 현실적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된다. 즉 성숙의 양면을 갖춘 장소로 그들의 경관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소는 일종의 공동체 기념물로서의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해양 경관 구축 전략의 일환이었음은 물론이다. 조·전기 단계에 바다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이러한 심증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조·전기 집단들이 공유하던 도서 및 해안지역의 경관적 상징성은 중기 이후가 되면 그 내용이 변화되거나 유지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 이후가 되면 해안이나 섬에서 이러한 성격의 무덤 유적은 산등 패총의 예를 제외하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누적된 장례 행위를 통해 강화된 장소성을 획득한 기념물 성격의 공동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기 이후 남해안지역의 생업 및 물질문화 변화를 이와 연동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다. 남해안 중기는 중서부 전통의 새로운 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 확산되는 때이자 이와 함께 도입된 초기 농경 및 식물성 식량자원 이용강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때이다(임상택 2006). 해양어로민으로서의 성격이 전기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는 시기이다. 실제로 원도권의 섬과 제주도에서는 이 단계의 유적 점유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바다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업에서의 변동은 당대인들의 환경 혹은 경관 인식 변화 과정(경관의 재구성)과 함께 진행되었을 것이다. 해안 및 섬이 무덤을 매개로 가지고 있던 기념물로서의 장소성에 균열이 발생된 것이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동해안 및 남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조~전기 무덤 유적을 매개로 하여 해안과 도서 지역이 경제적 차원의 접근법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무덤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별 단위 유적에서 대권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차를 가진 소지역권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소권역 내에서 개별 집단들이 해양 적응이라는 새로운 생업 패턴을 성공적으로 완비하는 데는 도구의 혁신이라는 기술적 차원 뿐 아니라 바다를 그들의 일상 경관화하는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였을 것인 바, 무덤은 매우 좋은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본고의 검토는 아직 무덤 자료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가설적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연구가 편년과 지역성, 생업 차원의 검토를 넘어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고가 작성되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 풍부한 신석기시대상을 그려볼 수 있다고 믿는다. 비약적 해석이나 자료의 오독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다양한 비판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高橋豊·河仁秀·小畑弘己, 2003, 「螢光X線分析에 의한 東三洞·凡方遺蹟 出土 黑曜石 產地推定」, 『한국신석기연구』 6, 한국신석기학회.
- 김건수, 2001, 「군산 노래섬 패총 식료자원의 계절성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 한국신석기연구회.
- 김범철, 2017, 「가덕도(장항)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신석기시대 매장관행에 대한 통합적 이해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34, 한국신석기학회.
- 김은영, 2012, 「신석기시대 동삼동지역의 생계전략 변동에 대하여」, 『한국신석기연구』 23, 한국신석기학회.
-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 김충배, 2002, 「신석기시대 낙시바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서문물연구원, 2008, 『울산 산하동 화암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조사연구보고서』 제59책.
- 매튜 존슨 지음, 오세연 옮김, 2015, 『경관고고학』, 사회평론.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연구』, 학연문화사.
- \_\_\_\_\_, 1997, 「신석기시대의 자연환경-식물상과 동물상」,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안덕임, 1993, 「패총 출토 동물유체-안면도 고남리패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9, 한국고고학회.
- 안덕임, 2009, 「미량원소(Ba, Sr, Zn) 분석법을 이용한 연대도 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고식생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66,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1,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신석기시대의 식생활과 패총유적의 점유 계절성 연구」, 『동방학』 2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안덕임·이인성, 2015,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신석기시대 연대도 패총 굴 채집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 31(1), 한국패류학회.
- 안성희, 2011,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의 석기조성과 시기별 양상」,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이상규, 2013, 「신석기시대 골제 자돌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4, 「신석기시대 한반도 해안지역 작살에 관한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7,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19, 「신석기시대 영남-서북큐슈 해안지역 교류에 관한 검토」, 『嶺南考古學』, 83, 영남고고학회.
- 이영덕, 2006, 「신석기시대 잠수작살의 가능성」, 『한국신석기연구』 11, 한국신석기학회.

- 이은, 2010,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생업활동연구-패총출토 동물유체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정, 2002, 「패총유적의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46,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3, 「동물 자료를 통한 유적 성격의 연구-동삼동 패총의 예」, 『한국고고학보』 50, 한국고고학회.
- 임상택, 1998, 「패총유적의 성격」, 『과기고고』 3, 아주대학교박물관.
- \_\_\_\_\_,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8, 「新石器時代 大韓海峽 兩岸地域 交流에 대한 再檢討」, 『嶺南考古學』 47, 영남고고학회.
- \_\_\_\_\_, 2015, 「한반도 신석기시대 복합수렵채집사회 성격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30,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17,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양식의 성립과 변동」, 『고고학』 16-1호, 중부고고학회.
- 임학중, 2003, 「남해안 신석기시대의 매장유구」, 『선사와 고대』 18, 한국고대학회.
- 임효재, 1986, 「신석기시대의 한일문화교류」, 『한국사론』 16, 국사편찬위원회.
- 정징원·하인수, 1998, 「남해안지방과 구주지방의 신석기시대 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천성주, 2010, 「신석기시대 결합식조침 검토」,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득준, 2012, 「한반도 신석기시대 결합식조침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혁, 2004, 「신석기시대 남부지방 생업에 대한 연구」,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발표자료집』.
- \_\_\_\_\_, 2006, 「신석기시대 어로문의 생계유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_\_\_\_\_, 2009, 「동삼동 패총인의 생업」, 『한국신석기연구』 18,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12, 「남부지방 중기 생업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서경문화사.
- 하인수, 2001, 「신석기시대 대외교류연구」, 『부산박물관연구논집』 8, 부산시립박물관.
- \_\_\_\_\_, 2006a, 「신석기시대 한일문화교류와 흑요석」,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6b, 「동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_\_\_\_\_, 2006c, 「영남 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의 골각기문화에 대한 고찰」, 『고문화』 7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_\_\_\_\_, 2014, 「동삼동패총의 패천 소고」,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패천(조개팔찌)』, 복천박물관.
- 한국고고학회, 2011,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 한영희, 1997,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사회」,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甲元眞之 外, 2002, 「先史時代の日韓交流試論」, 『青丘學術論集』第20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金壯錫·林尙澤·金鐘一, 2011, 「朝鮮半島南部の新石器化と景觀の變化」, 『景觀の大變容-新石器化と現代化』, 昭和堂.
- 金子浩昌·中山清隆, 1994, 「東三洞貝塚과 動物遺存體資料」, 『한국고고학보』 31, 한국고고학회
- Lee, Jun-Jung, 2001, *From Shellfish Gathering to Agriculture in Prehistoric Korea: The Chulmun to Mumun Transi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bstract】

Reading Processes of Marine Forager Landscape Construction through Burials

: The case of the eastern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hulmun Period.

Lim, Sangtaek\*

The coastal foragers of the Southern Korean Chulmun Period actively exploited marine resources from the Initial Phase (6000~4500 BCE), and they also maintained a complex network with contemporaneous communities of Japan's Kyushu Island. Researchers have usually thought that the islands, with their large numbers of shell mounds, served as economic patches for coastal foragers. However, following the excavation of several recently excavated burial sites at islands such as Gadeok, Yeondae, and Yokji, it has become clear that we need to transform our traditional perception of islands as merely resource patches. In other words, the islands should not be regarded only in terms of their functional aspects; we must attempt a fundamental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f islands, not as a materialistic 'space' for resource exploitation or burials but as an empirical 'place' for rituals, memories, living activities and so on for foragers. In doing so, islands acquired meanings of 'spaceness' of their own. This kind of 'spaceness' can be connected with the monu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s. Islands were monumental places for the coastal foragers of the Korean Chulmun period and economic and ritual practices (including resource exploitation and burial making, etc.) enhanced the 'spaceness' of these islands.

Key words : Chulmun Period, Initial~Early phase, Burials, Marine Landscape, Placeness

---

\* Pusan National University

